

음성여성화 수술 전-후 트랜스젠더의 음성학적 및 청지각적 특성변화

예송이비인후과¹,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언어병리학과²

이 아 름¹ · 심 현 섭²

서 론

트랜스젠더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반 청자들에 의해 평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트랜스젠더의 음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다.

대상 및 방법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 청자는 음성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수술 전-후의 음성을 연속적으로 들은 후에 남성스러움-여성스러움 정도를, 음성치료사는 GRBAS를 평가하였다.

결 과

첫째, 실시간 음성 주파수의 기본 주파수를 비교한 결과, 수술 전 131.9 Hz, 수술 후 188.9 Hz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일반청자가 수술 전-후의 여성스러움-남

성스러움 평정척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음성치료사의 수술 전-후의 GRBAS 척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수술 전-후 기본 주파수, 여성스러움-남성스러움 평정척도, 음성장애지수 총점수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기본 주파수가 화자의 성별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음향학적 단서지만 억양, 강도, 속도, 길이, 음질, 공명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음성치료사들은 음도 상승과 함께 기식성 음성, 공명주파수, 억양, 강도, 속도와 같은 부분의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에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